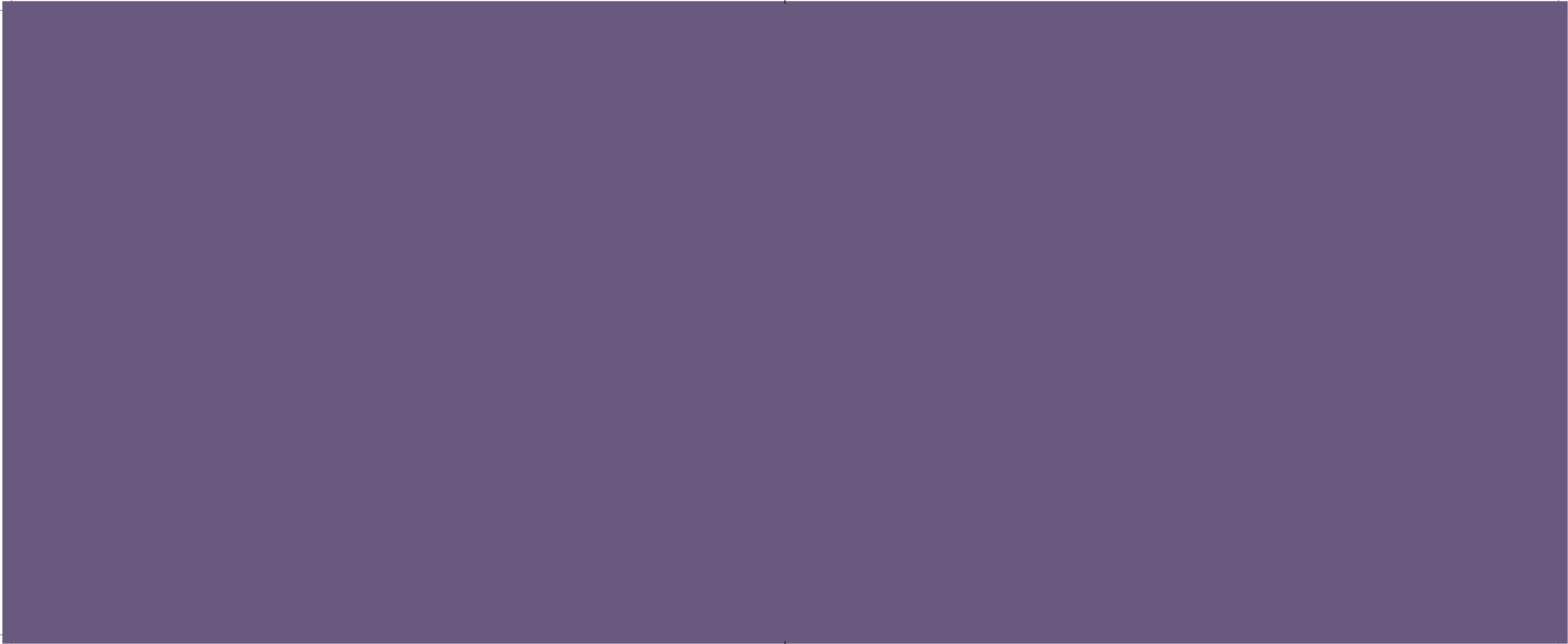




Vivienne
Westwood

LONDON



Vivienne
Westwood

contents

VIVIENNE WESTWOOD

- 브랜드 소개 5
- 대표 비비안 이사벨 웨스트우드 6

BRAND HISTORY

- 1970년대 '킹스로드' 7
- 첫번째 컬렉션 '해적' 8
- 창조적 전환점, '미니 크리니' 8
- 영국적인 것에 대한 애정과 패러디, '해리스 트위드' 9
-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현재 9

BRAND FEATURES

- 펑크의 대모, 시대의 아이콘 비비안 웨스트우드 11
- 과거 서양복식의 전통과 이국문화의 믹스매치 12
- 환경문제 및 사회문제에 참여적인 브랜드 13

SIGNATURE DESIGN

- 입체적인 드레스 15
- 플랫폼 슈즈 16
- 타탄체크 및 ORB 로고를 새긴 가죽 제품 17

QUESTION & ANSWER

- 인터뷰 19

SOURCE

- 출처 20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Vivienne Westwood



• Vivienne Westwood Ltd.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영국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로 영국 런던 엘조 가^{Elcho Street}에 본사가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남녀 컬렉션, 가죽제품, 액세서리, 향수, 아이웨어, 웨딩 드레스 등의 제품을 디자인 개발, 생산, 유통 및 마케팅까지 총괄한다. 판매는 전 세계 직영점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1992년에 상장되었고 현재 크리스티아노 민치오^{Chritiano Minchio}가 CEO를 맡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현재 비비안 웨스트우드 골드 라벨,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 라벨, 비비안 웨스트우드앙골로 마니아, 비비안 웨스트우드 맨^{Man}등의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 진출현황 및 규모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영국,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쿠웨이트, 레바논, 카타르,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등 세계 각지에 많은 수의 매장을 두고 있다.

• 브랜드 가치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위민스 웨어 데일리'^{Women's Wear Daily}에서 선정한 올해의 영국 디자이너^{British Designer of the Year}에 1989년, 1990년, 1991년까지 꾸준히 랭크되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영국 문화와 패션 산업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영국 여왕으로부터 1992년 O.B.E에 이어 2006년 D.B.E. 등의 훈장을 수여 받았다.



아웃사이더를 위한 패션 혁명가 비비안 웨스트우드

비비안 이사벨 웨스트우드 Vivienne Isabel Westwood

1941년 4월 8일, 영국 잉글랜드 더비셔주 틴솔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미들섹스 대학교

2003년 UK Fashion Export Award for Design

2001년 Moet & Chandon Fashion Tribute

1992년 올해의 베스트 a브리티시 디자이너

1992년 독일 베를린조형예술학교 교수

1989~1991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아트스쿨 교수

말콤 맥라렌과의 만남과 패션계로의 입문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1941년 4월 8일 잉글랜드 더비셔Derbyshire 틴솔Tintwistle의 작은 마을 글로숍Glossop에서 평범한 가정의 장녀로 태어났다. 본명은 비비안 스와이어Swire로, 16살 무렵 가족과 런던 북부로 이사한 후 해로 아트 스쿨Harrow School of Art에서 잠시 등록했으나, 보다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 한 학기 만에 그만 두고 사범 학교로 진학해 초등학교 교원이 되었다.

1962년 진공 청소기 회사의 견습생 데릭 웨스트우드Derek Westwood와 결혼하면서 그녀도 웨스트우드라는 성을 갖게 되었다. 자기 결혼식에 손수만든 드레스를 입을 정도로 손재주가 있었다. 65년 남편과 이혼하지만 어감이 마음에 들었던지 웨스트우드를 계속 쓴다.

1965년 말콤 맥라렌Malcolm McLaren과의 만남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삶과 경력에 전

환점을 가져왔다. 중산층 출신으로 예술 학교에 다녔던 맥라렌은 기성 세대의 문화를 비웃으며 성과 마약, 로큰롤에 탐닉하고 아방가르드 미학에 심취했던 당대의 전형적인 반항아였고, 무엇보다 패션을 사랑한 남성이었다.



맥라렌과의 만남을 통해 웨스트우드는 주류 문화에 대한 반권위주의적 태도를 갖게 되고 이를 표출하는 패션의 힘을 배우게 된다.

커플이 된 이들은 1971년 런던 킹스로드에 그들의 첫 번째 샵, 'Let it Rock'을 열고 젊은 아웃사이더들을 위한 도피처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영원히 패션의 세계에 정착하게 된다.

1970년대 킹스로드 시절



말콤 맥라렌과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1971년 첼시(런던) 킹스로드 430번지에 'Let it Rock'을 개점하고 로큰롤과 1950년대 테디 보이 스타일을 추종하는 테드들을 위한 의상을 판매하며 패션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72년 제임스 딘에 영감을 받아 'Too Fast to Live, Too Young to Die'로 이름을 변경하고 가죽 바이커 재킷 등을 판매했고, 1974년에는 'SEX'로 새롭게 변신하며 주류 문화의 모럴리티에 도전하는 컬트 패션을 제공하였다.

'SEX'는 섹스와 포르노그

래피를 연상시키는 고무와 가죽 의상을 팔았고, 기성 세대의 금기였던 나치 문양을 티셔츠에 사용하였다. 1976년 'Seditionaries'로 이름을 변경한 샵은 가죽 끈과 지퍼 등을 사용해 성적 페티시즘을 자극하는 본디지 의상Bondage wear을 제공하였다. 이즈음 말콤 맥라렌은 펑크 록 그룹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의 매니저였고, 맥라렌과 웨스트우드는 이들의 스타일링을 담당하며 펑크의 기호들을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도발적인 펑크 스타일은 대량 패션 시스템의 질서에 서 벗어나 스스로 원하는 것

을 직접 만들어내는 DIY 전략을 기반으로 탄생하였다. 번들거리는 싸구려 가죽과 고무, 과격한 장식, 포르노그래피 티셔츠는 구세대의 가치와 금기에 반항하고 도전하는 펑크의 무정부주의적 미학을 여과 없이 과시했다.

펑크 시절의 경험은 웨스트우드가 획일적인 주류 패션의 미적 질서에 저항해 자신만의 독특한 비전을 창조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해적’ 컬렉션, 미래를 위한 노스텔지어의 시작

1979년 킹스로드 430번지는 ‘World’s End’로 새롭게 거듭나며 펑크와 결별하였다.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자의식을 보다 확실히 갖게 된 웨스트우드는 새로운 영감과 비전이 필요했고, 옛 의상과 이국 문화의 의상 패턴들을 연구하며 아이디어와 테크닉을 연습했다.



1981년 봄 World’s End의 첫 번째 패션쇼, ‘해적Pirate’ 컬렉션이 열렸다. 18세기 해적 영웅들의 시대에 주목한 웨스트우드는 옛 남성복 재단법에서 영감을 받은 헐렁하고 비구조적인 셔츠와 바지, 노랑, 주황, 골드 화려한 컬러, 혁명기 프랑스 역사에 등장했던 덧쟁이들의 과시적인 이각모를 등장시켜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컬렉션을 선보였다.

해적 컬렉션은 맥라렌이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던 팝 그룹 Bow Wow Wow의 스타

일링에 사용되며 뉴 로맨틱 스타일의 유행을 시켰고, 그녀의 독창적인 재단법에 주목한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은 1983년 해적 컬렉션의 의상들을 구입하였다. 이후 웨스트우드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봄으로써 현재 문화에 부족한 것을 모색하는 쪽으로 작업 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게 된다.

두 번째 발표된 ‘새비지Savage’ 컬렉션에서 그녀는 북미 원주민들의 문화에 영감을 받아 기하학적 패턴의 이국적인 의상들을 선보였고, ‘버팔로Buffalo’ 컬렉션에서는 페루 원주민 여성에게서 영감을 받은 부폰 페티코트 스커트, 갈색 새틴 브라를 티셔츠 위해 덧입힌 파격적인 스타일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서구 복식 문화에서 오랫동안 규범으로 확립되어 온 겹옷과 속옷의 개념과 형식을 무시하고 해체시킨 것으로, 패션 비평가들에 의해 20세기 후반 부상한 포스트모던 패션의 중요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창조적 전환점, ‘미니 크리니’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맥라렌은 1983년 겨울 컬렉션을 끝으로 결별하였고 웨스트우드는 비즈니스 파트너 카를로 다마리오 Carlo d’Amario를 만나 1984년 이탈리아로 기반을 옮겼다.

이 시기를 전후해 그녀의 컬렉션에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 뉴욕 그래피티 예술가 키스 해링의 작품과 힙합 스타일링, 도쿄의 네온 사인과 새로운 스포츠웨어 소재 등 동시대의 문화와 패션 요소들이 다양하게 반영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개성을 뚜렷이 각인시키며 새로운 창조적 전환점을 만든 것은 1984년 10월 파리에서 발표한 ‘미니 크리니’ 컬렉션이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발레 <페트루시카Petrushka>에서 영감을 받아 엄숙한 빅토리아 시대의 상징인 크리놀린을 축소시킨 ‘미니 크리니’를 소개해 혁명을 일으켰다.



플라스틱 뼈대로 만든 가벼운 미니 크리놀린은 미니 마우스를 연상시키는 커다란 폴카 도트 스커트, 플랫폼 슈즈와 결합되어 미성숙함과 색시함이 공존하는 여성의 미묘한 에로티시즘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1980년대 여파^{yuppie}들이 주도했던 어깨를 강조한 남성적인 파워 슈트 스타일로부터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새로운 룩을 제안하는 것이었고, 웨스트우드는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이너로서 독창성을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영국적인 것에 대한 애정과 패러디, ‘해리스 트위드’



1987년 ‘해리스 트위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런던으로 다시 돌아와 발표한 첫 컬렉션이었다.

그녀는 영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드러내며 트위드, 개버딘, 니트 등 영국을 대표하는 직물과 테일러링 기술, 여왕의 관, 대관식 케이프 등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요소들을 대거 등장시켰다. 그러나 웨스트우드는 왕실의 근엄한 상징을 가볍고 색시한 패션의 재료로 바꾸어버리면서 영국 복식의 전통에 대한 애정과 현대 영국 문화의 보수성에 대한 조롱을 함께 나타냈다.

여왕의 어린 시절 사진 속 프린세스 코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붉은 트위드 재킷은 미성숙한 에로티시즘을 유발하는 미니 크리니와 결합되었고, 부스러기 트위드 천 조각으로만든 여왕의 관, 가짜 모피 케이프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현재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문화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명실공히 영국 패션계 여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웨스트우드가 참여했던 핑크 문화는 영국을 대표하는 혁신적인 하위문화 스타일로 정착되었고, 그녀가 열정적으로 탐구했던 트위드, 타탄 체크, 니트 트윈 세트, 클래식 테일러링 등은 여전히 가장 영국적인 패션 요소들로 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웨스트우드는 영국 패션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과 1991년 연속으로 ‘올해의 영국 디자이너’^{British Designer of the Year}로 선정되었고, 영국 여왕으로부터 1992년 OBE^{대영 제국 훈장}에 이어 2006년 DBE 작위^{2등급의 작위급 훈장}의 훈장을 수여받았다.

2003년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에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방대한 작품 세계를 정리하는 대대적 회고전이 진행되었다. 전시회를 이끈 클레어 윌콕스^{Clair Wilcox}는 웨스트우드의 삶을 이끌어온 것은 위대한 지적 호기심이었다고 언급하

면서,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문화뿐이다.”라는 웨스트우드의 말을 인용하였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개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아방가르드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여성으로서의 자의식, 문화적 전통에 대한 향수를 혼합해 그녀만의 스타일을 창조해내었고, 옛 문화와 전통이 창조적 혁신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의상은 오늘날 패션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보존하고 확장시키는 기관인 복식 박물관들에서 꼭 소장해야 할 주요 품목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과거를 뒤로 하고, 웨스트우드는 여전히 자신의 직관과 믿음에 따라 주류 문화의 독선을 거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찾고자 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brand features

Vivienne Westwood

핑크의 대모, 시대의 아이콘 비비안 웨스트우드

비비안 웨스트우드 브랜드의 정체성은 동명의 디자이너에게서 비롯된다. 무난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 파격적인 옷차림 등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과감함으로 늘 화제를 몰고 다녔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모습 또한 브랜드가 많은 팬을 거느리는 데 기여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평생 400파운드짜리 좁은 월세 집에서 살았으며, 60세를 넘는 나이에도 자전거를 타고 디자인 사무실에 출근했고, 현재의 남편인 안드레아스 크론타라가 집을 구한 후에야 자신의 집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1941년 생인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70세를 훌쩍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사회적인 문제에 의견을 내며 시대의 아이콘, 패션계의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 단체의 캠페인을 돕고,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스코트랜드 분리독립에 찬성의 목소리를 드높이기도 했다.

또한 아프리카 등지의 빈곤층과 소외된 여성에게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길거리의 현수막, 텐트 등을 재활용해 제작된 가방 등 '윤리적인 패션 아프리카'^{Ethical Fashion Africa}를 2010년도에 론칭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브랜드의 설립자이자 운영자라는 위치와는 상충되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옷을 쇼핑하지 말 것을 독려하며, 그녀 자신도 방송출연 등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낼 때 같은 옷을 여러 번 입고 나와 자신의 패션 철학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환경을 위해서는 덜 사고 덜 소비해야 한다. 물건을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구입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하며 케이트 미들턴^{Kate Middleton} 왕세자비에게도 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해 '같은 옷을 입은 모습을 여러 번 보고 싶다. 좋아하는 옷이 있으면 그걸 다양하게 연출하는 것이 멋진 옷차림이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언하기도 했다.





과거 서양복식의 전통과 이국문화의 믹스매치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정확한 테일러링을 통해 편안함을 제공하는 영국 패션의 특성과 디자인 및 정확한 프로포션의 미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프랑스 패션의 특성을 동시에 이해하고 적용하는 디자이너였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자신이 태어난 영국의 패션과 프랑스의 문화를 비교 연구하며 영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디자인 정체성을 만들어나갔다.

화려했던 프랑스와 영국의 옛 복식 스타일을 조합한 결과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의상은 미니멀리즘이 주도한 1990년대를 전후한 패션 경향과는 정반대로 연극적이고 웅장한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1996년 봄/여름 시즌에 선보인 ‘르 팜므’^{Les Femmes} 컬렉션에서 모델 린다 에반젤리스트^{Linda Evangelista}가 입었던 웅장한 치마 사이즈와 극도로 화려한 장식의 드레스는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와토 가운^{Watteau Gown}을 비대칭적으로 변형시켜 만든 것으로 전통 패션, 특히 로코코 궁정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이는 현재 영국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의상에서 또 하나 주목할만한 점은 서구 복식 문화에서 오랫동안 규범으로 확립되어 온 겹옷과 속옷의 개념과 형식을 무시하고 해체시키는 방법을 통해 옛 의상을 진부하지 않게 표현한 점이다. 일례로 1987년 가을/겨울 시즌에 선보인 ‘해리스 트워드’ 컬렉션에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코르셋을 처음으로 만들어 선보였고 이를 겹옷과 함께 보이도록 믹스매치했다.

1982년 가을/겨울 시즌에 선보인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버팔로’ 컬렉션에서는 브래지어를 티셔츠 위에 덧입힌 파격적인 스타일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영국과 프랑스의 전통 복식을 차용하면서도 이국적인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비대칭적이고 자유분방한 ‘겹쳐 입기’ 방식을 도입한 비비안 웨스트우드 컬렉션은 패션 비평가들에 의해 20세기 후반 부상한 포스트모던^{Post Modern} 패션의 중요 사례로 꼽힌다.



환경문제 및 사회문제에 참여적인 브랜드 비비안 웨스트우드

최근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디자이너뿐 아니라 환경운동가로도 활약할 뿐만 아니라 쇼를 통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패션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패션쇼 피날레에 적힌 문구 하나도 화제가 되는 시대이다. 그러니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방송에 나가 인터뷰^{Interview}하는 것보다 파급력이 크니 말이다. 나는 윤이 좋게도 패션을 통해 명성을 얻었다. 이 명성이 환경과 인권 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게 무척 뿌듯하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2006년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레오나드 펠티어는 무죄이다^{Leonard Peltier is Innocent}’라고 쓴 캠페인 티셔츠를 선보임으로서 FBI 요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30년째 복역중인 레오나드 펠티어라는 미국 인디언 인권 운동가의 석방을 요구했

고, 2013년 8월 ‘브래들리 매닝^{Bradley Manning} 일병의 35년 구형’에 항의하며 런던 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고, 이런 내용을 자신의 컬렉션에도 반영하여 ‘브래들리 매닝을 석방하라^{Free Bradley Manning}’는 캠페인 문구를 새긴 티셔츠와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브래들리 매닝 일병은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org}에 세계 각국의 부정부패 사실이 담긴 외교기밀문서 70만여 건을 폭로한 이후 2010년 5월 불법 체포됐다. 미국정부가 ‘미국의 중요한 외교전문을 유출한 범죄자’로 인정해 그를 감옥에 수감한 것이다.

이에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펑크는 정의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며 브래들리 매닝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015년 봄/여름 컬렉션에서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우리는 스코틀랜드^{Scotland}가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투표에서 이기기

를 바란다. 나는 영국에 대해 상당히 반감이 많다. 영국은 모든 걸 망쳐놨고, 정치인들은 불완전한 자본주의 시장으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모두 끌어내렸다’라며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투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4년경 환경학자인 제임스 러브록^{James Ephraim Lovelock}의 책을 읽은 후부터였다고 한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기후 변화에 대한 가이아 이론을 만든 제임스 러브록은 수십억 명의 사람이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기후 변화 때문에 생존을 위협받고, 북극에 사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거라고 단언했다’며 ‘그 책을 읽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이후 비비안 웨스우드는 환경 보호 비영리

단체인 쿨 어스^{Cool Earth}에 100만 파운드를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윤리적 패션^{Ethical Fashion} 인사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

2013년 봄/여름 컬렉션에서는 피날레에서 사각 쇼츠^{Shorts} 위에 팬티 스타킹^{Panty Stocking}을 덧입은 파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해 ‘기후변화혁명^{Climate Revolution}’이라고 쓴 플래카드^{Placard}를 흔들었고, 2013년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행주를 재활용해 만든 의상을 선보이기도 했다.

signature design



입체적인 드레스

비비안 웨스트우드드는 입체 드레이핑^[Draping] 방식을 즐겨 사용한다.

이는 패턴을 바닥에 그리고 이에 따라 소재를 재단하고 봉제해 옷을 만드는 일반적인 테일러링 방식이 아니라 마네킹에 천을 대고 직접 주름을 잡고 다트를 넣는 등의 방식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비비안 웨스트우드드 특유의 풍성한 옷을 만드는 핵심 봉제 기술이다.

특히, 이런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화려한 드레스다. 2008년, 동명의 TV 시리즈를 영화로 만든 '섹스앤더시티^[Sex and the City]'에서 주연을 맡은 사라 제시카 파커^[Sarah Jessica Parker]는 결혼식 날 비비안 웨스트우드드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다.

이 드레스는 금빛이 도는 아이보리 컬러의 코르셋과 광택 있는 재질의 풍성한 스커트, 날렵한 네크라인^[Neck Line]이 특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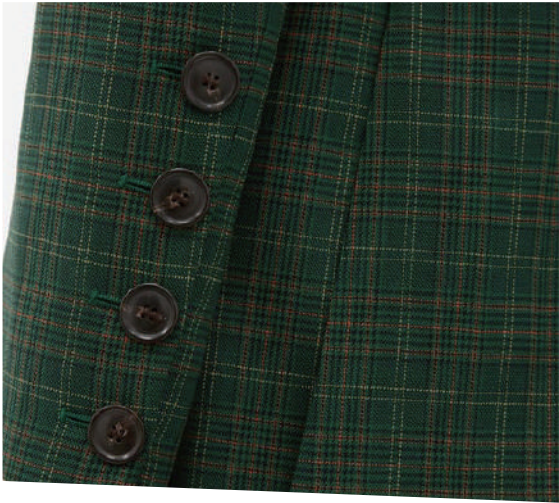
이와 같이 여성스러운 동시에 반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비비안 웨스트우드드의 입체적인 드레스는 비비안 웨스트우드드의 대표 상품이다.



플랫폼 슈즈

밑창 전체를 높게 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플랫폼 슈즈는 핑크를 기반으로 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아이템 중 하나다. 특히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플랫폼 슈즈는 1990년대 중후반 일본에서 크게 유행해 이를 신고 운전을 하던 여성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고를 내거나 높은 굽 때문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등 관련된 사고가 속출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1993년, 모델 나오미 캠벨(Naomi Campbell)이 40cm가 넘는 높이의 비비안 웨스트우드 플랫폼을 신고 무대에서 워킹 중에 넘어진 사건은 20세기 패션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중요한 장면이 되었다. 이에 대해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을 싫어한다. 때로는 아픔이나 불편함도 참아야 한다. 멋진 하이힐을 신으려면 발이 아파도 참아야 한다. 그래야 특별해질 수 있다.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재미없고 지루하다. 그런 점에서 내 옷이 멋지다.” 이와 같이 플랫폼 슈즈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디자인 철학이 가장 잘 담긴 브랜드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타탄 체크



타탄체크(Tartan Check)는 스코틀랜드의 씨족에 전해지는 2중, 3중으로 겹쳐진 전통적인 격자무늬를 뜻한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1993년, 록캐런(Lochcarron)사와 협업을 진행하여 자신의 새 남편을 위한 'McAndreas'라는 고유의 타탄을 개발했고 컬렉션을 통해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여 영국풍에 대한 향수를 패션계에 고취시켰으며, 그녀가 열정적으로 탐구했던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타탄 체크는 여전히 가장 영국적인 패션요소로 조명되어 인정받고 있다.

오브 ORB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대표하는 로고인 '오브(ORB)'는 영국 왕실의 표장에 영감을 받아 고리 모양을 더해 만들었으며, '새로운 디자인 창조는 모두 과거와 미래의 교류를 연 구함에서 비롯된다'라는 의지와 브랜드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오브 로고는 20세기 대중들에게 가장 성공적으로 각인된 표식 중 하나이며, 전통과 현대의 복식 양식을 믹스 매치해 새로운 창조물을 내놓는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하다. 오브 로고는 유행에 따라 약간의 장식과 중심 컬러를 변형하며, 매 시즌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Question

&

&

Answer



Q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40주년을 축하한 캣워크 시리즈 책 출판을 축하한다! 아직 책을 보지 못했는데 직접 책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A 너무나도 기쁘고, 아직도 어안이 빙빙하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컬렉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잊어버렸다. 책으로 출간해준 테임즈 앤 허드슨 출판사와 팀에게 정말 감사하다. 캣 워크에 전부 바친 책이라 무척 특별하다.

Q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패션과 문화의 한 시대를 대변하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이런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새로운 컬렉션을 만든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A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이고 처음 시작 이후 지금까지 크게 변한 것은 없다. 난 늘 비비안의 의견과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작업의 처음이나 중간, 마지막 언제라도 난 늘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녀만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Q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 알렉산더 페리와 V&A 토크에서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역사에 대한 두 사람의 열정이 무척 인상적이다. 역사에 대한 열정과 영감의 원천이 무엇인가?

A 난 역사와 과거에 대해 항상 깊게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사실은 나와 비비안이 서로 교감한 지점이기도 하다. 비비안은 역사를 정말 좋아하니까. 그녀는 18세기 역사를 무척 좋아하는데 나 역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18세기에서 만난 것이다.

Q 기념비적인 책을 출판한 지금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다음 계획은 무엇이 고 오프라인 캣워크 쇼 계획도 있는지 알려달라.

A 지금은 '바이 레스 (BUY LESS)' 컬렉션 작업에 몰두할 시간을 만드는 중이다. 이번 시즌에 파리에서 캣워크 쇼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 파리를 무척 사랑하고 정말 그리웠다!

출처

https://blog.naver.com/styleego_kr/222685949893

<https://www.harpersbazaar.co.kr/article/58008>

<https://nereus.tistory.com/35>

<https://namu.wiki/w/%EB%B9%84%EB%B9%84%EC%95%88%20%EC%9B%A8%EC%8A%A4%ED%8A%B8%EC%9A%B0%EB%93%9C#s-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97889&cid=43168&categoryId=43168#TABLE_OF_CONTENT21

https://blog.naver.com/wpslwnsh_/222074693973

